

심없는 양현종, 1만 타자 상대 기록 달성

‘전설’ 송진우 이어 역대 2번째

삼성전 6이닝 2탈삼진 3실점 팀 패배로 빛바래 KIA, 삼성 홈런포에 와르르...워닝시리즈 내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첫 2연패를 당했다. KIA는 삼성의 탄탄한 볼펜을 공략하지 못하고, 이를 연속 패배를 안았다.

KIA는 7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솔(SOL)뱅크 KBO리그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3-7로 역전패했다.

KIA는 이날 SSG전 승리를 거둔 NC에게 반 게임차로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다.

선발투수 양현종은 6이닝 동안 5피안타 3볼넷 2삼진 3실점으로 호투했으나,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시즌 3번째 등판에서도 첫 승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양현종은 KBO리그 통산 2번째로 '1만 타자 상대' 기록을 달성한 데에 만족해야 했다. 이 부문 최다 기록은 2009년 은퇴한 송진우(전 한화 이글스)의 1만 2천 708타자다.

민망한 KIA 필승조 볼펜도 이를 연속 난조를 보이며, 추가로 4실점해 아쉬운 패배를 맛보아야 했다.

양현종에 이어 7회에 마운드를 넘겨 받은 최치민이 2피안타 1실점, 장현식 1실점(1피홈런), 김건국이 2실점했다. 타선에서는 총 7안타가 나온 가운데

이우성이 4타수 3안타 1타점 맹타를 때렸고, 박민이 멀티히트로 분전했으나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양팀은 4회까지 동점과 역전을 주고 받는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선취점은 KIA의 몫이었다.

1회 징검다리 볼넷과 진투타로 1사 1, 3루 상황에서 이우성이 1타점 적시타를 때려 1-0으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곧바로 삼성에게 동점 홈런을 허용했다.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3번 타자 공민규에게 우익수 담장을 넘는 솔로포를 맞으며 1-1이 됐다.

3회에도 2점을 더 내줬다.

선두타자에게 2루타를 맞은 뒤 2명의 타자를 범타로 처리했으나 볼넷과 연속 안타를 내주며 2점을 헌납, 스코어는 1-3이 됐다.

KIA가 4회 반격에 나서며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이우성의 2루타와 연속 볼넷으로 만든 무사 만루 상황에서 고종욱의 땅볼과 박민의 1타점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3-3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7회에 다시 1실점하며, 삼성에게 분위기를 내줬다.

두 타자 연속 안타와 폭투로 1사 2, 3루 상황에 몰렸고, 김재혁에게 희생플라이를 맞고 스코어는 3-4가 됐다. 8회에는 김현곤에게 솔로 홈런까지



7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이날 KBO리그 통산 2번째로 '1만 타자 상대' 기록을 달성한 KIA 선발 투수 양현종이 야수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허용했다. KIA는 최성훈과 임창민, 오승환 등 삼성의 베테랑 볼펜을 공략하지 못하고, 결국 3-7로 패했다.

시즌 성적 8승째가 된 KIA는 9일 홈에서 LG와 3연전을 갖고, 12일 장소를 대전으로 옮겨 한화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주홍철 기자



7일 삼성과의 홈경기에 2024 시즌 세번째 만원 관중이 들어찬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KIA 타이거즈 제공>

‘벌써 23번째 매진 돌풍’

2024 프로야구 관중 100만명 돌파 눈앞

2024 프로야구가 개막 4주 만에 관중 100만명 돌파를 앞섰다.

7일 삼성 라이온즈-KIA 타이거즈(광주), 한화 이글스-키움 히어로즈(고척) 두 경기가 매진돼 시즌 누적 매진 경기 수는 23경기로 늘었다.

전체 일정의 9%인 66경기만 치렀는데도 벌써 지난해 전체 매진 횟수(46회)의 절반을 채웠다.

한화와 KIA가 이끄는 흥행 태풍이 거세다.

한화는 10개 구단 중 최다인 5번이나 안방에서 매진을 달성했다.

한화 팬들이 이번 주말에 몰린 키움 히어로즈의 홈구장 서울 고척스카이돔에는 2016년 개장 이래 최초로 사흘 연속 만원 관중이 몰

렸다. KIA는 홈에서 세 차례 입장권을 다 팔았고, 서울로 올라와 지난 주말 두산 베어스 홈 경기 표도 다 팔아줬다.

두 구단이 긴 매진이 14번에 달한다.

2024 프로야구는 6일까지 60경기에서 86만 6천 382명의 관중을 동원해 다음 주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공휴일과 주말 경기를 고려하면 무난히 100만 관중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야구는 2012년에 65경기 만에 관중 100만명을 넘어 이 부문 최소 경기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101경기 만에 도달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구단별 매진 일시

(7일 현재)

구단	매진횟수	만원 관중수	매진 날짜(상대팀)
LG	2회	2만 3천 750명	3월 23-24일(한화)
kt	2회	1만 8천 700명	3월 23-24일(삼성)
SSG	2회	2만 3천명	3월 23-24일(롯데)
NC	1회	1만 7천 891명	3월 23일(두산)
두산	3회	2만 3천 70명	3월 29-31일(KIA)
KIA	3회	2만 500명	3월 23일(키움) 4월 6-7일(삼성)
롯데	1회	2만 2천 754명	3월 30일(NC)
삼성	1회	2만 4천명	3월 30일(SSG)
한화	5회	1만 2천명	3월 29-31일(kt) 4월 2일, 4일(롯데)
키움	3회	1만 6천명	4월 5-7일(한화)

어!, 어! 하다 ‘돌아보니 4연패’

광주FC, 김천 원정 1대2 역전패



개막 2연승으로 기세를 타는 듯 했던 광주FC가 4연패 늪에 빠졌다.

광주는 지난 6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역전패했다.

이정호 감독은 연패 탈출을 위해 선발 명단에 큰 변화를 줬다.

골키퍼 김경민이 다이렉트 퇴장으로 결정찬 자리를 이준이 메웠다. 좌우 윙백은 이민기와 김진호가 나섰고, 볼박이 미드필더 정호연 대신 이강현이 시즌 첫 출장했다.

선제골은 광주가 넣었다.

전반 6분 이희균이 내준 패스를 가브리엘이 슈팅으로 연결했다. 공을 걷어 내려는 상대 수비수 발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갔지만, 가브리엘의 득점으로 인정됐다.

전반 19분 김천 정지인의 강력한 원발 슈트는 골키퍼 이준이 간신히 쳐 내면서 실점 위기를 모면했다.

김천의 강력한 압박에 밀려 이렇다 할 찬스를 잡지 못한 광주가 전반 38분 정지웅과 정호연을 교체 투입했다.

하지만,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광주가 전반 추가 시간 3분에 또 다시 골을 내주고 말았다.

광주의 오른쪽 측면에서 내준 프리킥 상황에서 김천의 김대원이 갑아 찬공을 정지인이 노마크 헤더 슈트로 받아 넣었다. 포항전부터 계속된 추가 시간 실점이 4경기째 반복된 것.

위기 상황이 계속됐던 후반 10분, 김천 정지인에게 또다시 결정적 찬스를 허용했다.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에서 너무 쉽게 공간을 내줬다.

이어진 김천의 코너킥 상황에서 포포비치가 핸드볼 반칙을 범하며 패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정지인이 가깝게 차 넣었다.

후반 17분, 광주의 정지웅이 모처럼 만에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키며 크로스를 올렸다. 하지만 골 에어리어 안에 있던 이건희와 가브리엘이 겹치면서 골 찬스가 무산됐다. 골이 이정호 감독은 전반 교체 투입된 정지웅을 빼고 장신 공격수 빅토를 출전시키는 강수를 뒀다.

후반 33분에는 수비수 안영규가 위협적인 태클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는 불운이 이어졌다.



광주FC 가브리엘이 지난 6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후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는 이희균과 최경록을 빼고 아사니와 김경재를 긴급 투입, 만회를 노렸다. 광주가 9분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이민기가 측면 돌파 후 완벽하게 내준 공을 빅토가 왼발 발리슛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경기는 1대2로 마무리됐다. /박희중 기자

김세영·안나린, 결승 진출 좌절

LPGA 투어 매치플레이, 머과이어·코르다에게 밀리

김세영과 안나린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T-모바일 매치플레이 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세영과 안나린은 7일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새도 크리크(파72·6천 804야드)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각각 리오나 머과이어(아일랜드), 벨리 코르다(미국)에게 패했다.

이로써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8번째로 열린 대회에서도 첫 우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한국 선수가 시즌 개막 후 8개 대회에서 우승이 없는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세영은 머과이어에게 3홀 차로 패했다. 통산 12승의 김세영은 이번 대회 1라운드 단독 선두, 2라운드 공동 선두,

3라운드 3위로 거침없이 질주했으나 결국 준결승에서 멈췄다.

안나린은 준결승전에서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에게 4홀 차로 무릎 꿇었다. 2022년 데뷔한 안나린은 아직 LPGA 투어 우승이 없다.

올해 1월 드라이브 챔피언십 우승까지 포함해 4개 대회 연속 우승 기록도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장타 맞대결’ 완승 황유민 시즌 첫 우승..상금·대상 1위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 제패

황유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국내 개막전 정상에 올랐다. 황유민은 7일 제주도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타를 쳐 합계 14언더파 27타로 우승했다.

황유민은 지난해 7월 대우위니아 M BN 여자오픈 이후 9개월 만에 통산 2승 고지에 올랐다.

박해준을 1타 차로 따돌린 황유민은 우승 상금 2억 1천 600만 원을 받아 상금 랭킹 1위(2억 5천 266만 원)를 꿰찼고, 대상 포인트 1위도 점령했다.

신인이던 작년 장타 부문 2위에 올랐던 황유민은 이번 대회에서 특히 나홀로 내내 장신 장타자들과 맞대결을 펼친 끝에 우승까지 따냈다.

1, 2라운드에서는 2022년 장타 1위 윤이나, 작년 장타 1위 방신실과 동반 라운드를 치른 끝에 8타 차 완승을 거두며 선두로 반환점을 돌았다.

윤이나와 방신실은 둘 다 키 170cm가 넘는 장신에서 뿔어나오는 장타를 치



7일 열린 '두산 We've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황유민이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KLPGA 제공>

는 선수들이다. 3라운드는 지난해 장타 3위였던 문정민과 맞대결 끝에 2타 차 선두로 나섰다. 문정민도 171cm의 큰 키에서 장타를 때린다.

최종 라운드에서 황유민과 챔피언십 조에서 경기한 박해준과 강지선 역시 170cm가 훌쩍 넘는 장신에다 장타자들이다.

박해준은 키 177cm로 KLPGA 투어 최장신이고 강지선은 키가 171cm이다. 나홀로 내내 KLPGA 투어에서 손꼽는 장타자들을 차례로 제친 셈이다. /연합뉴스